

응급신경학의 국내현황과 문제점



이 성 은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Emergency neurology in korea

Sung Eun Le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신경과의 인력부족 현상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에서는 의대 졸업자와 전공의 숫자를 일치 시킨다는 정책기조하에 전공의 정원감축(신경과 전공의 정원, 2011년 104명 → 2018년 82명)을 진행해 왔다.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 더하여 2016년부터 전공의 주 80시간 이상 근무제한 및 36시간 연속근무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며 진료 일선에서의 일손부족 현상은 도드라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병원 자체적으로 응급신경학 전문의 혹은 진료 및 입원 전담의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병원에서 10명 정도의 전문의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24시간, 365일의 응급실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신경과 입장에서 응급신경학 전문의의 필요성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 중 많은 수는 신경과적 진료가 필요하다. 아주대병원의 경우에도 중증응급환자(KTAS 1-3) 중 전문과 진료를 위해 refer 되는 환자의 수에서 신경과는 내과 및 일반외과에 이어 3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과 및 외과의 경우, 전공의 및 전문의의 수가 신경과보다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는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 강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응급실 진료의 어려움은 환자가 언제 내원할 지 알 수가 없어 시간을

미리 조절할 수 없다는 데에 있으며, 실제로 입원환자의 진료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들의 경우 응급실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나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되면서 병동 및 검사실을 담당하는 동시에 응급실을 24시간 커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응급실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시간이 중요한 대표적인 질환은 뇌졸중이다. 급성 뇌졸중의 진료를 위한 뇌졸중 안전망의 구축은 오래 전부터 대한뇌졸중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주장해 왔으며, 한국에 최소 100개 이상의 뇌졸중센터가 인증/지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여 왔으나, 2019년 현재 60여개의 뇌졸중센터 만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뇌졸중의 경우 1명의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서 3-4명의 신경계 응급질환자를 진료해야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뇌졸중 안전망의 구축은 응급실에서 신경계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응급실 입장에서 응급신경학 전문의의 필요성

응급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벗어나는 것이며, 이는 입원, 퇴원, 전원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에서는 특진비로 줄어든 병원의 수입을 응급진료 등으로 보상해 주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응급실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이 중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응급실체류시간 및 타과전문의 적정시간 내 협의진료 수행율이 되겠다. 신경과 질환은 타과에서 중증도를 판단하기가 힘이 들고, 위험도 평가를 위해 Brain MRI 등의 추가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응급실에서 오래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평가를 중시하는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이러

Sung Eun Le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World Cup ro 164, Suwon, South Korea

Tel: +82-31-219-7757 Fax: +82-31-219-7787

E-mail: plumpboy@hanmail.net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신경과도 이러한 요구가 있는 과 중 하나이다.

응급신경학 전문의 체제 유지의 어려움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각 과에 정원을 늘릴 때에는 그에 따른 수입의 증대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신경과 의사의 경우에는 전공의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 많은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는, 외래환자를 보거나 입원환자를 많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입의 증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병원의 신경과에서 병원 운영진에게 응급신경학을 하는 전문의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여러가지 직면한 상황들은 응급신경학을 위한 전문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청에 맞추어 신경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